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오늘은 성령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 장신대 신대원 2학년 학생들이 ‘교회 밖 현장실천’으로 19일(목)부터 21일(토)까지 우리 공동체에 방문하여 생활합니다.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및 비전선포식이 6월 17일(화) 오후 6시에 워커히호텔에서 있습니다.
- 어린이학교 6월여행이 17일(화)~18일(수) 경기도 용인에서 있습니다.
- 멋쟁이학교 1학기 학부모 모임이 다음 주일(22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나들이가 20일(금)에 서울에서 있습니다.
- 오늘 1시30분에 자연예배당에서 연령별사랑방 연합 찬양모임이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베다니 하늘주방 팀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24 호

2025년 6월 15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셋이 하나이신 것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고린도후서 13:13)”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문장으로, 축도의 때에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를 단연히 나타내 보이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 Trinity)란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 하나님은 곧 하나이시자 세 위격(位格)을 가진다는 기독교 교리이자 용어입니다. 본질과 실체는 하나이되, 위격은 셋이고, 그 셋 또한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근거로 몇 가지 말씀이 인용되곤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복음 17:11)>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7:22)>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복음 28:19-20)>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마가복음 1:10-12)>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특수한 본질에 대해,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깊은 유대에 대해 알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깊은 차원에 대해 온전히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질과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였고, 그 결과는 바로 “유일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특성”이라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해하길 포기하고 “원래 그런 분” 또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기 어려운 존재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의 일부라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인 관계가 될 것을 주문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나오는 이 내용은, 축도문 앞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로서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쫓아 끊임없이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를 깊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한주간의 말씀

“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183, 197 / 420
기도 : 진정행 권사
성경 : 레위기 20장
제목 : 거룩, 음행을 멀리하는 것

1. 내용: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음행을 강력하게 금지시키다.(What)
<문단구분>
1~5절 인신공양 금지 규례
6~8절 사술 금지 규례
9절 패역한 자식에 관한 규례
10~21절 음행에 관한 규례
22~27절 나의 백성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 의미: 영적 음행과 육적 음행은 연결되어 있다. (Why)
 - 1)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 2)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행하게 된다.
 - 3)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 하라는 것이다.
3. 적용: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빛에 집중하자 (How)
 - 1) 음란한 세대에서 음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 2)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다.
 - 3)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자.

순종과 훈련에 관한 권면의 말씀

제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일입니다. 다스리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주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온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하기 전에는 그 마음이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디든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 보십시오. 그러나 윗사람의 다스림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데서도 편히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소를 자꾸만 고르고 변화를 원하는 바람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기꺼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과 평화를 위해 꺾어야만 합니다. 그 누가 있어 과연 모든 것을 알만큼 슬기롭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너무 믿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견해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의 견해가 확실한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짐짓 모르는 체하고 다른 이의 견해를 따른다면, 당신은 큰 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남에게 충고하는 것보다 충고를 듣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 두 사람의 견해가 다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상대방의 견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것은 그가 교만하고 고집스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 1997년 7월 6일 주보에서 발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33 : 1-3

8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일서 1 : 9

7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선포 **연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비**

요한복음 16 : 1-15 인도자

감사하신 하나님 미리내사랑방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20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승호 이어직 / 봉헌위원 : 임진숙 / 꽃꽂이 : 김영화
듣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연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비

마지막 설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하신다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사도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일까요?

성령의 도움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 속에서 이해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무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연합의 신비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진리 가운데 하나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의 빛 가운데 영적 무지를 벗어나야 진리 가운데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차현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요즘 꾸러기학교에서는 딱지놀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틈만 나면 다양한 종이로 크고 작은 딱지를 만들고 그 중 하나를 골라 딱지치기 시합을 벌이기도 합니다. 현재 제일 센 딱지는 신문지로 만든 딱지인데 좀 더 강력한 딱지를 만들기 위해 꾸러기들과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중입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꾸러기들이 언제나 좋아하는 트랜폴린 타기를 비롯해서 그네타기, 자전거타기, 소꿉놀이와 축구까지 다양한 놀이를 즐깁니다. 요즘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팔을 뻗어 익은 열매를 따먹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방에 널린 질경이의 꽃대를 잘라 꽃대 씨름도 하고 빨갭게 익은 딸기를 따다가 팥이밥 잎을 따서 먹기도 합니다.

신나게 놀다보면 하루가 후딱 지나가는 6월입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어제는 이번 학기 마지막 학부모회의가 있었습니다. 가족여행을 떠난 한 가정을 제외하곤 모든 가정이 참여하여 학교의 일정을 공유하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모두 나누고보니 어려움 하나 없이 평안하기만 한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음이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남은 학기도 함께 힘을 내어 지내겠습니다.

배움과 가르침

지난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3주간 지속될 LTSS 수업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기후위기의 현 상황을 바로 알고 기후변화에 따른 갖가지 피해와 우리의 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은 후손의 것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려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피해만 고스란히 넘겨주지 않도록 작은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엔 어린이들이 기다리는 놀이동산과 수영장을 가는 1박2일 여행과 연합나들이가 있습니다. 한 주가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찰 것이 기대됩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많은 멋쟁이들이 다양한 감정을 품고 기다려왔던 학년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학년은 여행의 테마가 결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3학년의 학년별여행은 '자전거 여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경험을 얻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너무 힘들지 않는 선에서 코스와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 외 다른 학년은 비교적 자유롭게 여행지를 정해서 다녀왔습니다.

1학년은 가평 쪽에서 강물과 즐거운 때를 보냈고, 2학년은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4학년은 귀국 이후 휴식과 함께 미국 생활에 대한 보고회를 준비했고, 5학년은 속초에서 물놀이를 실컷 즐겼습니다. 마지막으로 6학년은 춘천과 수원을 오가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멋쟁이들 모두가 여행의 경험들을 잘 정리하여서 좋은 내적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본래의 시간표로 돌아오면서 슬슬 학기말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바쁘고 분주할 수 있는 시기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멋쟁이들이 펍 멋집니다. 앞으로도 힘을 내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바이블데이 준비

올해는 바이블데이에 연극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성경암송대회 같이 할 것이란 생각은 가볍게 빛나갔습니다. 너무 새로워서 충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성경암송에 대해 매우 중요함을 느낍니다. 어릴 때 어린이사랑방에서 외웠던 성경말씀이 그때는 정말 외우기 힘들어서 싫었는데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정확히 기억나는 말씀은 그때 외웠던 말씀들입니다. 가장 힘든 방법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따라가려면 암송이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퀴즈대회, 성경암송대회 스타일에 익숙한 나머지 연극이란 방식은 많이 새로웠습니다. 솔직히 말씀 암송이 너무 좋고, 중요한 성경공부 방법이지만 아무리 보고, 보고 또 봐도 안 외워서서 평소에는 하지 않는데 연극은 그동안 했던 준비과정과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보통 무작정 말씀을 통으로 외우는 스타일로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말씀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연극으로 만들기에 평소보다 말씀이 머리에서 전체적으로 그려져서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되고, 인물 한 명, 한 명 그때를 깊이 생각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지금 미리내사랑방과 그루터기사랑방에서 연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본을 어떻게 만들지, 복장, 말을 배역 등 준비시간이 꽤 들었습니다. 성경을 오래 봤지만 매번 잊고,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 오게 성경말씀 같습니다. 이 성경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연극이라 성경말씀 자체에 오히려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내용이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연극이란 방식이 처음 하는 방식이지만 또 하나의 깊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29일 아홉 사랑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다른 방의 연극을 보면 암송보다 더 깊이 머리에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183, 187

성경 : 창세기 3:1-8

말씀 : 진실함으로 화평을 이루십시오.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 곳곳의 분쟁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대만해역에서 있었던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불법이민자 단속 시위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미사일 폭격 등 전 세계가 분쟁으로 치달고 있습니다.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분열을 그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공동체에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회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학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런 무더위에 지체들이 아프시지는 않을 지 염려스럽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이곳저곳을 손보았습니다. 데크도 수리하고 여러 곳을 살피며 큰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 비에 발작물들이 잘 버텨줄지 걱정입니다. 앞으로 배수로 정리도 해야 하고 비가 새는 지붕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장마기간을 별 탈 없이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